

올 첫 출하식... 농가 살리고 건강 챙기고



명품 광양 매실 고깃 참 실하네

2년간 과잉생산·경기침체에 판매 부진·가격 하락 이중고 농협과 MOU·유통업체 입점 등 광양시, 판매 촉진 총력전 펼쳐

광양시가 광양매실 판매촉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됐지만, 최근 2년간 과잉생산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판매 부진과 매실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농협중앙회 청과사업국과 광양매실 판매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 광양매실 생산량은 1만톤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광양시는 이번 MOU 체결로 생매실 5000톤 이상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광양매실 주산지인 다압농협에서 '빛그린 광양매실 첫 출하식' 행사도 열렸다.

광양시는 이날 올해 첫 출하된 광양매실 20여톤을 농협중앙회 청과사업국을 통해 수도권 시장에 선보이는 한편 국내 매실시장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광양매실의 안정적인 판매 확보와 홍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이마트, NC백화점 등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 판촉활동도 전개한다.

광양시는 전국 이마트 146개소 모든 매장에서 오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실의 보고장 광양매실을 판매하며, 전국 김스클럽(NC) 37개 점포에서도 같은 기간

광양매실 판매행사를 갖는다.

특히 NC강남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동안 생매실을 포함한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감말랭이, 버섯, 고사리, 취나물, 재첩, 기정떡 등) 특별판매전을 전개하며, 우리음식연구원들이 참여해 매실음식 요리 연시회도 개최한다. 광양시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와의 광양매실 직거래 판촉 행사를 통해 총 1000톤의 매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시는 또 광양 매실의 출하시기에 맞춰 오는 28~29일 이틀간 다압면 대화마을 주차장에서 광양시 매실연구회와 다압면 매실연구회가 주관하는 '광양매실 체험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광양매실 체험 직거래장터'는 광양매실 따기 체험과 광양매실 장아찌 만들기 체험, 광양매실과 가매주(梅酒) 품평회를 비롯한 매실가

공제품 전시·판매점, 향토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허명구 광양시 마케팅전략팀장은 "광양(光陽)은 지명답게 일조량이 풍부해 최상급의 매실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과육이 두텁고 굵어 매실청을 담기에도 알맞다"면서 "유기산과 비타민은 물론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 등이 뛰어난 광양 매실을 많이 드시고 피로회복은 물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양매실은 꽃피는 시기가 1~2주 빨라지면서 개화기 저온으로 청숙과 전매 품종은 20~30% 감수가 예상되고 배가하와 남고는 평년작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광양매실 생산업 현황은 생산량 9314톤, 재배면적 1746ha로, 전국 생산량의 22.6%, 재배면적의 2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조수익은 202억원, 소득액은 14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광양=김영진기자 kkw@

광양시, 매실 수확 일손돕기 지원장구 개설

광양시는 1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6월 24일까지 유관기관·단체·기업 등 지역 각계와 함께 매실수확 일손돕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광양매실은 직접 손으로 한 알 한 알 따야하는 탓에 수확기철 많은 일손이 필요한 대표작물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18일까지 일손돕기 지원장구를 개설하고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의 신청을 받았다.

매실수확 일손 돕기는 자연·농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노약자, 부녀자,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일손 돕는 기관과 단체가 직접 도시락과 작업도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성황근린공원 조성 사업 23일부터 토지 보상

보상금 160억 중 150억 확보

광양시는 19일 "성황근린공원(도이동 산3-1번지 일원) 52만5000㎡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 평균연령이 37.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도시로 꼽히는 광양시는 젊은층을 겨냥한 휴식공간 제공과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성황근린공원을 조

성하고 있다.

성황근린공원은 2017년부터 다목적문화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산림욕장, 산책로, 하늘전망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등이 단계별로 들어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이 투입되며, 보상은 1구역(2016년~2017년까지), 2구역(2018년), 3구역(2019년)으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이번 보상 대상은 1구역으로 토지 122필지(14만3466㎡), 건축물 32동, 분묘 69기,

지장물 287건으로 이달말 31일까지 우선 보상한다.

미상속, 근저당 설정 토지 등 장기적인 법적 절차 이행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중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승택 광양시 도시행정팀장은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한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해 명품공원이 손조롭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보상예산으로 총 보상금 160억원 중 150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한 1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접수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이순신대교 재난 대응 입체적 훈련

광양시와 여수시, 광양·여수 소방서, 경찰서, 여수해양경비 안전서 등 26개 기관·단체는 지난 17일 '이순신 대교'에서 교량 복합사고 대응 가상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총 890명이 참가했으며,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탱크로리, 엠블런스 등 차량 64대, 경비정, 방재선, 소방정, 어업지도선, 어선 등 선박 11척, 헬기 1대 등 대규모 장비가 동원됐다. /광양=김영진기자 kkw@

광양시와 여수시, 광양·여수 소방서, 경찰서, 여수해양경비 안전서 등 26개 기관·단체는 지난 17일 '이순신 대교'에서 교량 복합사고 대응 가상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총 890명이 참가했으며,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탱크로리, 엠블런스 등 차량 64대, 경비정, 방재선, 소방정, 어업지도선, 어선 등 선박 11척, 헬기 1대 등 대규모 장비가 동원됐다. /광양=김영진기자 kkw@

광양제철 숨어있는 낭비 줄이고 철강 경쟁력 키운다

임직원 맞춤형 교육 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속에 숨어있는 낭비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교육에 나섰다.

19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총 43차수에 걸쳐 임원 이하 직책보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낭비줄이기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다. <사진>

교육과정은 제철소 전체 생산과정 중 물류대기, 설비, 자원(에너지), 공정, 품질, 재고, 운반 등 핵심 프로세스에서 발생 가능한 낭비를 발견하고, 개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원, 부장, 과장·공장장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들



에 걸쳐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각 부서 대표들을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낭비줄이기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

현장직원의 일상 낭비줄이기 활동에 선순환 기회를 제공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이란 바닷길 4년8개월만에 복원

연간 10만TEU 처리 기대

광양과 이란을 잇는 바닷길이 4년 8개월 만에 복원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란 국영선사인 이리슬(IRISL)해운이 20일 모선 '사브리트호'를 투입, 주 1항차(일주일에 한차례 화물을 싣고 들어왔다가 출항)의 정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란 정기선 재운항은 2011년 10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중단한 지 4년 8개월 만이다. 그 배

경에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대형 고객들의 사전예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최근 국내 대형 고객사들이 이리슬해운에 수출에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보내 줄 것을 사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리슬해운은 지난 14일 5100TEU급 '바시트호'를 투입해 1100TEU의 빈 컨테이너를 광양항에 공급했다.

광양항과 이란 남부의 반드라바스항을 운항할 이번 서비스에는 사브디스호, 바시트호 등 5000TEU급 컨테이너

선 5척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이리슬해운의 광양항 재기항으로 호남에서 생산한 이란에서 인기 높은 한국산 가전제품,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이 광양항을 통해 수출될 것으로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과 이란의 경제교류가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내다봤다.

송정익 마케팅팀장은 "이란 항로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면 연간 10만 TEU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항 재개 첫해인 올해에도 3~4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돼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 회복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축** **오픈**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연락처: (062) 720-28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못,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